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Jung Yun Jang¹, Jung Hyun Kim², Chang Hee Kim³

장정윤¹, 김정현², 김창희³

¹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8100710@scnu.ac.kr

² Lecturer, School of global sport studies,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improvejh@gmail.com

³ Doctorate course,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Kyonggi University, South Korea, ganddan1@korea.kr

Corresponding author: Jung Yun J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ata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were collected from August, 22, 2022 to September, 30, 2022 as a purpose sampling method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236 participants responses of the survey was used as final analysis data, with the exception of questionnaires that are not suitable for use in research. Data analysis using SPSS version 25.0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erformance approach, performance avoidance, the mastery approach and mastery avoidance),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ird,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e furth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Adaptabilit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ediated Effect

요약: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36명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Received: November 08, 2022; 1st Review Result: December 23, 2022; 2nd Review Result: January 23, 2023
Accepted: February 28, 2023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투입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낮아진 반면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이해와 능력 향상, 그리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수준, 진로적응성, 특성화고등학생, 매개효과

1. 서론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설계하는 과정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은 자신의 경력 개발에 중요한 과정이다[1].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다르게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직업 탐색과 진로 결정은 직업 세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직업 탐색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방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로 탐색 과정은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1]. 진로 탐색은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으로서, 진로 적응성을 촉진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진로 전환을 촉진한다[2]. 또한 진로 탐색은 진로 결정과 결정 지위라는 주요한 결과와 관련이 있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진로 개입의 주요 변인이다[3].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직업 과정의 맥락과 개별적 선행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별 요인과 관련하여 진로 탐색에 대한 좋은 예측 요인으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효능감, 진로 지원, 진로 목표 등을 강조하였다[4]. 또한, 지원 환경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매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맥락적 선행 조건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과 관련된 선행 요인에 대한 이전 선행연구는 결과 변수들에 의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히 동기부여 기능 분야에서 진로 탐색과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개별적 요인의 존재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 활동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성취목표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현장에 적합한 산업 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인해 진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진로와 취업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과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진로 결정 요인 탐색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로 결정을 앞둔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무엇을 배우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자기 목표, 방향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 성취목표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한 개인이 무엇을 얻고, 성취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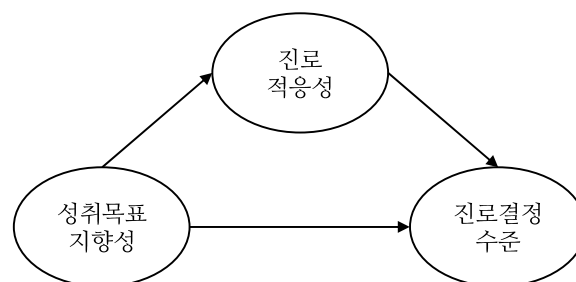
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6][7].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에 따라 성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상황적 조건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 조절 전략과 행동 조절에 긍정적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은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특성 수행 상황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서 진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데 성취목표지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또한 학습자의 행동 수행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간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즉 진로적응성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학습의 과정으로 가정하여 개인의 학습 수행을 설명하는 인지적 동기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함께 상황적인 요인도 고려되는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4].

이처럼 성취목표동기, 자기효능감, 취업 불안, 진로 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는 성격적 특성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선행 변인을 탐색하고 결과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 학업, 직무, 조직 등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관한 변인으로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9][15]. 다수의 선행연구는 진로적응성이나 진로결정수준 요인에 대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15][16], 주로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거나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 적응성과 진로결정의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진로적응성 변수가 투입됨에 따라 전체적 변인 간에 어떠한 영향력과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모형

[Fig. 1] The Mediated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법을 이용하여 27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사전에 학교와 담당 교사의 수락을 얻은 후 학부모 안내와 설문조사에 협의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된 29부와 현장 실습 대상자에 포함된 5부를 제외한 2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으로는 1학년 114명 (48.3%), 2학년 122명(51.7%) 순으로 분포하였다. 3학년의 경우, 현장 취업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학과의 경우, 6개의 학과 중에서 전기과 74명(31.4%), 기계과 73명(30.9%), 공유경제시스템 34명(14.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236)

변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학년	1학년	114	48.3
	2학년	122	51.7
전공	경찰사무행정과	12	5.1
	공유경제시스템	34	14.4
	기계과	73	30.9
	레저스포츠과	32	13.6
	사물인터넷	11	4.7
	전기과	74	31.4

2.2 조사도구

2.2.1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주화와 김아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0]. 검사지는 숙달접근목표,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네 가지 하위항목으로 각각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숙달접근목표 0.88, 숙달회피목표 0.84, 수행접근목표 0.82, 수행회피목표 0.87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α 는 0.91로 나타났다.

2.2.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avickas와 Porfeli가 개발하고, Tak이 번안하고, 정지은이 수정한 한국판 CAAS (Career Adapt-Ability Scale)을 사용하였다[11-13]. CAAS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AAS는 국제적으로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관심 0.88, 통제 0.86, 호기심 0.86, 자신감 0.89 로 전체 0.86~0.89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α 는 0.95이다.

2.2.3 진로결정수준

Osipow와 동료들이 제작하고 고향자가 번역하여 재구성한 CDS(Career Deci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14]. 본 척도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2문항)과 진로미결정성(16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 2는 높은 점수일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은 것이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상태를 의미한다. Osipow와 동료들의 진로결정수준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0.90, 진로미결정성 0.82로 나타났다[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진로결정확신성 0.79, 진로미결정성 0.94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α 는 0.93을 보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학년은 현장 실습 또는 취업 대상자이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수집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수칙을 수준 하며 사전에 학교와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약속된 기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 동의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확인을 위해 일주일 후 학교를 재방문하여 회수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가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질문지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었다. 설문지 응답은 자기기입법으로 실시되었고 완료된 설문지는 그 즉시 회수하였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15분 소요되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18].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적응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하나인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9]. 이에 모든 연구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결과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예측변수인 성취목표지향성의 $M(SD)$ 는 3.20(.68), 진로적응성의 $M(SD)$ 는 3.94(.62), 진로결정수준의 $M(SD)$ 는 3.24(.66)으로 분석되었다.

[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M	SD
성취목표지향성	237	1.20	5.00	3.20	.68
진로적응성	236	2.50	5.00	3.94	.62
진로결정수준	236	1.53	5.00	3.24	.66

3.2 특성화고등학생의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특성화고등학생들의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 검증에 앞서 각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변수들의 상관계수가 .9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고등학생들의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행렬

[Table 3] A Matrix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변인	1	2	3	4	5	7	8	9	10
1.수행접근목표	1								
2.수행회피목표	.583**	1							
3.숙달접근목표	.404**	.290**	1						
4.숙달회피목표	.427**	.592**	.434**	1					
5.관심	.215**	.039	.293**	.061	1				
6.통제	.233**	.064	.275**	-.018	.673**	1			
7.호기심	.218**	.188	.299**	.115	.676**	.649**	1		
8.자신감	.173**	.039	.252**	-.039	.664**	.756**	.725**	1	
9.진로결정확신성	.197**	.122	.272**	.041	.550**	.470**	.430**	.523**	1
10.진로미결정성	-.026	-.241**	.063	-.187**	.179**	.138*	.109	.145*	.066
M	3.41	3.07	3.40	2.93	3.93	3.92	3.86	3.47	3.01
SD	.89	.90	.80	.92	.74	.69	.70	.94	.86

*p<.05, **p<.01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와 숙달접근목표는 진로적응성의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진로결정확신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진로미결정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회피목표와 숙달회피목표는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수준의 진로미결정성($\gamma=-.241$, $\gamma=-.187$)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2는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3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1은 $F = 9.638$ ($p < .001$), 모형 2는 $F = 7.928$ ($p < .001$), 모형 3은 $F = 13.797$ ($p < .001$)로 본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별로 나타난 설명력은 모형 1은 $R^2 = .143$, 수정된 $R^2 = .128$, 모형 2는 $R^2 = .121$, 수정된 $R^2 = .105$, 모형 3은 $R^2 = .327$, 수정된 $R^2 = .303$ 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 해당하는 모형 3에 대한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표준오차		
1단계 독립→매개	수행접근목표	.142	.054	.205	2.602**
	수행회피목표	-.027	.059	-.038	.653
	숙달접근목표	.249	.055	.321	.001***
	숙달회피목표	-.114	.054	-.170	.035*
$F(4, 231) = 9.638***, R^2 = .143, \text{수정된 } R^2 = .128$					
2단계 독립→중속	수행접근목표	.125	.058	.171	2.143*
	수행회피목표	-.093	.063	-.126	-1.465
	숙달접근목표	.246	.059	.299	4.186***
	숙달회피목표	-.157	.058	-.220	-2.703**
$F(4, 231) = 7.928***, R^2 = .121, \text{수정된 } R^2 = .105$					
3단계 독립· 매개→중속	수행접근목표	.053	.053	.073	1.011
	수행회피목표	-.064	.056	-.088	-1.144
	숙달접근목표	.124	.054	.151	2.299*
	숙달회피목표	-.102	.053	-.143	-1.936
	관심	.313	.074	.351	4.215***
	통제	.004	.085	.005	.050
	호기심	-.052	.083	-.055	-.624
	자신감	.205	.090	.219	2.274*
$F(4, 227) = 13.797***, R^2 = .327, \text{수정된 } R^2 = .303$					

* $p < .05$, ** $p < .01$

모형 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1단계 독립변수인 성취목표지향성이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beta = .205$), 숙달접근목표($\beta = .321$)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숙달회피목표($\beta = -.170$)는 진로적응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beta = .171$)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숙달접근목표($\beta = .299$)와 숙달회피목표($\beta = -.220$)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목표($\beta = .151$)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진로적응성의 관심($\beta = .351$)과 자신감($\beta = .219$)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목표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99$ 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 변수가 투입된 모형 3에서는 $\beta = .151$ 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2단계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매개변수에 의해 독립변수의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진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성취 상황에 놓였을 때 목적인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유사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더 나은 일자리를 발견하고 고용의 질 또한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하였다[20][21]. 현재 취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취 과제를 선택하고, 과업을 지속하며,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목표지향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적응 기간을 미리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에 대한 유능성과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려는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를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현재의 동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진취적인 성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는 김호용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22]. 게다가 차세대 영재 기업인의 진로 유지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흥미보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진로 유지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적응성 또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와 개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준비도는 진로결정수준을 증진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찍 진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학생들은 다른 변인에 비해 지식적인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취 상황이나 자신의 목표에 대한 실패로 인한 회피보다는 문제해결과 인지적 통제의 혼란으로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유능함을 개발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동기 개발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진로 교육 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효능감,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또한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과 이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별적 진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별과 학급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실질적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검사지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R. W. Lent, S. D. Brown, Understanding and facilitating caree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26, (2013)
- [2] M. L. Savickas,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44-180, (2013)
- [3] S. L. L. Turner, R. T. Lapan, S. L. Turner, Promotion of career awareness, development, and school succ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I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John Wiley & Sons, (2012)
- [4] M. E. Rogers, P. A. Creed,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using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ramework, *Journal of adolescence*, (2011), Vol.34, No.1, pp.163-172.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9.12.010>
- [5] B. Lee, E. J. Porfeli, A. Hirschi, Between-and within-person level motivational precursors associated with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6), Vol.92, pp.125-134.
DOI: <https://doi.org/10.1016/j.jvb.2015.11.009>
- [6] K. M. Sheldon, A. J. Elliot, Goal striving, need 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9), Vol.76, No.3, pp.482-49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6.3.482>
- [7] W. A. Hershberger, Psychology as a conative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1988), Vol.43, No.10, pp.823-824.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3.10.823>
- [8] A. R. Kim, J. R. Kang,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in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Vol.20, No.11, pp.93-115.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1.93>
- [9] T. W.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231, (2019)
- [10] J. H. Lee, A. Kim, Development of an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5), Vol.19, No.1, pp.311-325.
- [11] M. L. Savickas, E. J. Porfeli,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2), Vol.80, No.3, pp.661-673.
DOI: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1>
- [12] J. Tak,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2), Vol.80, No.3, pp.712-715.
DOI: <https://doi.org/10.1016/j.jvb.2012.01.008>
- [13] J. E. Jeo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pp.113-114, (2013)
- [14]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09-114, (1993)
- [15] K. M. Jin,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Hotel management Studies*, (2015), Vol.24, No.6, pp.145-162.
- [16] B. K. Chun, S. J. Choo, The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tenacity and sport commitment of university athletes, *The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2011), Vol.20, pp.469-481.
- [17] S. H. Osipow, C. G. Carney,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6), Vol.9, No.2, pp.233-24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
- [18] T. J. Song, Easy to 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AMOS) : From descriptive statistics to structural equation models, Hakjisa, pp.243-427, (2007)
- [19]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 Vol.51, No.6, pp.1173-1182.
- [20] C. Y. Jeong,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he occupational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type, Chung-Ang University, Master Thesis, pp.88-163, (2021)
- [21] J. Koen, U. C. Klehe, A. E. M. Van Vianen, Training career adaptability to facilitate a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2), Vol.81, No.3, pp.395-408.
DOI: <https://doi.org/10.1016/j.jvb.2012.10.003>
- [22] H. Y.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on career decision level by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HVEA*, (2013), Vol.14, No.34, pp.69-83.
- [23] Y. E. Kim, G. N. Lee, Effect of social cognitive factors on the career persistence of the gifted enterprisers of the next gener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16), Vol.22, No.4, pp.139-154.